

‘제주형 외국인 근로자’ 도입 추진 속도

열악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조례 입법예고도, 농가 일손 부족 해결 위한 정책 추진 절차 시동

제주도가 도내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또 농가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제주형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도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준시기한 및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용도 추가 및 기간 연장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외국인근로자 임시 숙소’를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대상 용도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관련 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도내 곳곳에선 비닐하우스 합동 숙소에서 근로자들을 머물게 하는 등 열악한 실태가 지적(본보 8월 23일자 4면 보도)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강화된 외국인 근로자 숙소시설 기준이 마련됐지만 도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았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가 부실하다는 언론 보도와 서귀포시 측의 조례 반영 등 요청이 있어 왔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고용노동부 지침에 맞게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 현장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을 위한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해외 지자체의 업무협약(MOU) 추진을 별도 전문 대행 기관에 맡기기로 했다. 현재는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알아서 MOU를 체결해 계절 근로자를 유치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농가가 최소 하루 단위로 계절근로자의 노동력을 받을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업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농작업 대행 방식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2027년까지 17개 지자체로 확대하려는 기존 계획을 2024년으로 앞당겼다.

이에 발맞춰 제주도는 ‘제주형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시범사업 참여를 골자로 하되, 제주의 실정에 맞는 근로자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본보 8월 2일·30일자 4면 보도) 등에 따라 도내 경작 실태에 맞도록 적용·추진하려는 것이다.

제주도는 행정시, 농업 제주본부, 제주연구원, 농민회 등과 함께 ‘제주형 외국인근로자 도입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고용허가 신청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도록 했다. 비닐하우스를 철거한 후 농지 위에 가설 건축물만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고용허가를 불허했다.

고용주가 고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지자체에서 허가 또는 신고 받은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만 고용을 허가했으며, 이 중 지자체로부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임시 숙소)를 받은 경우에만 고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 대상 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고용을 허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도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준시기한 및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용도 추가 및 기간 연장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외국인근로자 임시 숙소’를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대상 용도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고용허가 신청



‘제주시 재활용 나눔 축제’ 지난 17일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일원에서 열린 ‘2022 제주시 재활용 나눔 축제’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어린이·청소년 베품시장과 도랑도랑 재활용 물품 알뜰 장터에 참여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목적 명확해야”

환경포럼서 전문가들 제언

환경보전기여금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도청에서 제주환경포럼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주환경보전기여금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정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는 “제주환경보전기여금 과잉 금지 원칙 위배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라며 “형평성, 중립성, 구체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보전기여금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환경보전의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인지, 관광수요 억

제인지 등 명확해 져야 한다”면서 “환경압력이 있다고 하면 대기오염 배출량, 하수 발생량 등 오염압력을 벗어나 자연환경에 대해 다른 압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제주에 입도하는 외부인들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있는데 과연 오염원이 도민을 제외한 입도인에게만 있는 것인지, 단순히 입도했다해서 동일한 오염배출량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정 방법, 기금 활용 여부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서귀포시, 국제문화교류 첫발 내딛다

제주포럼서 ‘문화도시’ 세션 “노지문화 로컬문화 브랜드로”

서귀포시가 제17회 제주포럼을 통해 ‘서귀포시 문화도시’ 세계화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시는 ‘공존, 공진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문화도시’의 주제로 지난 17회 제주포럼 세션을 진행, 이날이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션은 문화도시 서귀포가 국제 문화교류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시작”이라며 “항후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는 물론 문화도시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비로컬 주식회사 김혁주 대표는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로컬 문화의 확장’의 주제로 로컬문화를 통한 지역의 성장과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서귀포시 문화도시 핵심인 ‘노지문화’가 제주 대표 로컬문화 브랜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 토론도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신용식 문화관광체육부 한류지원협력과장은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갈등 속에 한류가 문화 공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평화와 포용하며 번영한 다양한 한류의 역할을 설명했다.

잇단 가을 태풍에 농작물 피해 ‘주의’

농업기술원 관리요령 발표 병해 발생 우려 방제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잇따른 가을 태풍에 대응해 농작물 피해 최소화해 필요한 관리요령을 발표했다.

18일 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제주가 제14호 태풍 ‘남마돌’과 제15호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이광준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장은 문화도시 서귀포가 국제적 문화 상호 교류 협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백혈병 소아암 및 희귀난치병 환우모임

아름다운 동행

(사)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에서는 백혈병, 소아암 및 희귀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환우와 그 가족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사업, 교육지원사업, 심리정서지원사업 그리고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기금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며 후원사업과 문화사업, 홍보사업 등의 연계사업 등으로 기부문화의 중심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협회가 함께 동행 할 것입니다.

대상
백혈병, 소아암 및 희귀난치병을 진단받은 만20세 이하의 환우

신청방법
사무국 내방 상담 후 신청

신청 시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병원비 혹은 약제비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문의 및 신청
(사)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
TEL.(064)752-3300
e-mail:jejuubh1@daum.net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매촌동길 89

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酉 一 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녹물정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랙아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울딩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 한국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마을소 ● 국제보청기 (국제기개소)
한라체육관 ● 심내수영장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그랜드보청기

한가위 고객감사 대축제 불가안정 이벤트
1 20만원 상당 삼신배양근 2 15만원 상당 UV진저기
※ 1번 소진시 2번 사은품 제공됩니다.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2021 LGTIFA
일등보통 4대 상 4회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충전형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촌들 혼자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방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무료주차)

서시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외버스터미널 그랜드보청기